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성료

열흘간의 영화기행... '내년에 또 만나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지난 6일 폐막작 <서바이벌 패밀리> (감독 야구시 시노부) 상영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 예년에 비해 프로그램이 풍성했을 뿐더러 징검다리 황금연휴와 맞물려 많은 관객들이 영화제를 찾았다는 것.

실제로 이번 영화제는 거의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총 58개국 229편(장편 179편, 단편 50편)의 영화가 관객들에게 선을 보였다.

영화제 상영 횟수는 지난해 보다 40회 증가한 543회. 이 중 270회가 매진돼 영화제에 대한 관람객의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개막식·작·우리는 같은 꿈을 꾸다: 몸과 영혼을 비롯해 <로스트 인 파리>, 전주시네마프로젝트 3편 등 장편 30편과 한국단편경쟁 등이 전 회 차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다.

또한 영화제 기간 관람객 수는 지난해 보다 11%(7만1093명) 늘어난 7만9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있어 국내 여느 영화제와 영화관 상영작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수작들로 채워져 관람객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개성과 완성도 면에서 호평을 받은 전주시네마프로젝트 작 <노무현입니다> (감독 이창재), <시인의 사랑> (감독 김양희), <초행> (감독 김대환)은 2017년 한국 독립영화의 약진을 기대하게 했다.

이와 함께 주제의식이 뚜렷한 정치·경제·사회·예술다큐멘터리들이 대거 상영됨으로써 영화제 기간 동안 화제의 중심에 섰다. <버블 패밀리> (마민지), <파란나비효과> (감독 박문철), <8급 며느리> (감독 선호빈), <미스 프레지던트> (감독 김재환), <이중섭의 눈> (감독 김희철) 등은 논쟁과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지난 6일 폐막했다. 사진은 영화제 기간 중 사람들로 가득 찬 영화의 거리.

58개국 229편 선보여 상영횟수 543회 중 270회 매진 관람객들의 열기 반영 관람객 수 7만9000명 추산 정치·경제 다큐 대거 상영 영화제 기간동안 화제 중심에

전주 돔 사고시 대피요령 설명 부족 등은 취약점으로

화두를 던져온 전주국제영화제의 정체성 (독립·대안)을 발현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100명의 그래픽 디자이너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져 올해 3회째를 맞은 '100 Films, 100 Posters'는 영화제를 대표하는 전시 이벤트로 자리 잡았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상대적으로 잘 치러졌다. 하지만 아쉬움도 더러 있었다. 날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전주 돔' (대형 TFS)은 행사장·상영장·공연장으로써 공간의 효율가치를 높이며 관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나, 사고 시 대피요령에 대한 설명 부족은 취약점으로 꼽혔다.

또 구도심의 비좁은 도로와 영화의 거리 일대의 공사는 영화제 기간 내내 어수선함과 불편함을 야기했다.

그 밖에도 시나리오 작가 송길한의 '영혼을 쓰다' 전은 볼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위치 홍보 부족으로 전시를 놓치지 않았다.

공예체험과 아트마켓, 드라이플라워, 캘리그래피 등 영화의 거리에서 진행된 각종 부대행사와 무료 체험이벤트는 영화제의 분위기를 더했으나 일정이 짧았으며, 점차 어린아이는 1개 정도의 부스만 운영돼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아쉬움을 샀다. /정혜은 기자



동서양 악기 연주로 '힐링' 선사

익산 배산휴먼시아 '신나는 예술여행' 성료

'신나는 예술여행' 행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후원, LH공사 협력으로 최근 익산 배산휴먼시아 4단지 내에서 성황리 개최됐다고 밝혔다.

'신나는 예술여행'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후원, LH공사 협력으로 순수예술관람 경험이 없거나 적은 분들에게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저소득층 등 문화적 소외를 겪고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다.

2017년 5월 2일 요즈음 같은 어려운 시기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배산휴먼시아4단지에서 양질의 동서양악기 퓨전힐링 콘서트를 다양한 장르의 음악공연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문화예술 공연을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쳐 입주민들의 삶에 활력소가 되기에 충분하였고 문화나눔의 기회가 되었다.

이 행사는 순수예술관람 경험이 없거나 적은 분들에게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저소득층 등 문화적 소외를 겪고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기여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김지숙씨, 춘향극대전 명창부 대통령상 수상

소녀명창으로 이름을 날린 김지숙씨(45, 전북 익산)가 네 번째 도전 끝에 명창의 반열에 올랐다.

김씨는 7일 남원시 광한투원 원월정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44회 춘향극대전 판소리 명창부 본선에서 춘향가 중 '이별가 대목'을 불러 대통령상을 받았다.

김씨는 시원하고 깔끔한 목소리로 이별가 대목을 완벽하게 소화해 평균 98.6점을 얻었다.

김씨는 안숙선 명창으로부터 소리를 사사했다. 지난해부터는 신영희 명창으로부터도 지도를 받고 있다.

학력으로는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구파 소리꾼이다.

김씨는 현재 국립창극단에서 여주인공으로 활약하고 있다. 특히, 국립창극단 최연소 나이로 입단하는 등 소녀 명창으로 이름을 날렸다.

심사위원인 김화자 명창은 "김씨는 장단이 잘 맞고 노래와 북이 잘 어울렸다"고 평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수상작 선정

국제경쟁 - 다비 프레투 '라이플'
한국경쟁 - 임태규 '폭력의 씨앗'
한국단편 - 배경현 '가까이'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충직)의 국제경쟁상은 다비 프레투 감독의 <라이플>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태규 감독의 <폭력의 씨앗>과 배경현 감독의 <가까이>는 각각 한국경쟁부문과 한국단편경쟁 대상의 영예를 누렸다.

국제경쟁부문 대상을 수상한 <라이플>은 외판 시골에 부동산을 사러온 부자에게 존립의 위협을 느낀 목장 청년 두인이 장총을 들고 이에 맞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문명과 자연이라는 서부극의 구도 아래 하드보일드 스타일을 숨겨 좋게 조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국제경쟁부문 작품상인 '우석상'은 다미앙 매니블 감독의 <공원의 연인>에게 돌아갔으며, 심사위원특별상은 마이살룬 아무드 감독의 <인 비트윈>과 에두아르도 윌리엄스 감독의 <인류의 상송>이 공동수상했다.

한국경쟁부문 대상 수상작인 <폭력의 씨앗>은 임태규 감독의 첫 번째 장편원출작으로, 군대 조직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폭력과 그에 대처하는 개인의 황망한 행동들을 보여주며 폭력은 개인의 영역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국제경쟁과 한국경쟁 상영작에게 시상되는 'CGV아트하우스 창작지원상'은 이승원 감독의 <해피피스타이>가 수상했으며, 특히 한국경쟁부문 대상 수상작인 <폭력의 씨앗>은 CGV아트하우스 배급지

원상'도 수상해 경이사를 누렸다.

한국단편경쟁 부문 심사위원특별상은 채의석 감독의 <불뚱이>, 감독상은 김용삼 감독의 <해영>에게 돌아갔다.

이 외에도 '넷팩상'은 김희철 감독의 <이중섭의 눈>, '다큐멘터리상'은 박문철 감독의 <파란나비효과>에게 돌아갔다. '대명컬처웨이브상'은 고봉수 감독의 <튼튼이의 모험>, '유니온투자파트너스상'은 황규일 감독의 <샘>이 수상했다. /정혜은 기자

전주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작품 공모

(사)전주영상위원회는 '전주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작품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전주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은 지역 콘텐츠 개발과 영상문화소통의 발판을 위하여 기획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주와 관련된 소재가 중심이 되는 중·장편 다큐멘터리이며, 지원 자격은 이미 제작 중이거나 촬영을 준비 중인 해당 다큐멘터리의 연출자면 된다. 단, 이미 완성된 작품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전주영상 위 홈페이지(www.jifc.or.kr)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다큐멘터리 기획서, 예산내역서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메일(appy@jifc.or.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프로젝트 중 1편을 선정하여 총 제작비 1천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작년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전주 한옥마을 이야기를 담은 김정인 감독의 <내 사랑 한옥마을>이 상영되었다. /정혜은 기자

전주프로젝트마켓, 올 시네마펀드 새롭게 조성

전주프로젝트마켓(JPM)은 올해 전주시네마펀드를 새롭게 조성했다.

전주시네마펀드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극영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의 기획 개발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이를 통해 조직위는 중·저예산 장편영화의 제작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또한 조직위가 제작·투자하는 '전주시네마프로젝트(JCP)'와 연계해 제작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네마펀드2017은 한국영화에 새 피를 수혈하는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총 1억 원의 기금으로 시작을 알렸다. 이를 통해 연간 10편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발하여 각 1천만 원의 개발지원금을 지원하고 일부 작품에 대해서는 제작과 투자도 검토한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 작품은 다음과 같다. 전주시네마프로젝트로 제작 지원을 받는 JCP상에 <국도극장>(감독 전지희),



TV5MONDE에서 개발지원금을 지원하는 TV5MONDE상에 <국도극장>과 <미소의 별>(감독 이상민)이 선정되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JICA)에서 사운드 마스터링 지원을 받는 JICA상으로는 <기적에 관하여>(감독 박인경), <단풍 미남들>(감독 성지혜)에게 돌아갔다.

촬영장비 및 로케이션 지원을 현물로 받는 JJFC상에는 <숙회>(감독 나영길)와 <

국도극장>이 받았다. 해외영화제 출품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자막 제작을 현물로 지원하는 프르모디티상에는 <국도극장>과 <시인>(감독 김재환) 두 편이 수상했다.

끝으로 디지털 색보정과 DCP를 지원받는 전주영화제작소상에는 <시인>과 <지도>를 만드는 사립(감독 이강현)에게 수여됐다. /정혜은 기자

무주산골영화제, 류현경 공식 화보 공개

초여름 내음이 주변을 가득 메울 6월의 낭만 영화 축제,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를 기다리는 관객에게 선행과 낭만을 선사해줄 페스티벌 프렌드 배우 류현경의 공식 화보가 공개되었다.

낭만 가득한 영화 소풍을 콘셉트로 한 이번 화보에는 배우 류현경의 자연스러운 매력에 듬뿍 담겼다. 산골 무주와 영화제의 다양한 행사 현장을 즐기는 배우 류현경의 밝고 활기찬 모습이 보는 이들을 미소 짓게 한다. 한편, 무주산골영화제만의 소란스럽지 않은 생동감과 싱그러움 느낌이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배우 류현경과 잘 어울리며 초록빛이 가득할 올해의 영화제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여주고 있다.

페스티벌 프렌드의 공식 화보는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홈페이지(www.mjff.or.kr)를 비롯하여 블로그 및 SNS를 통해 만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